

# 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 예능 '강호동네서점', 한국 대표 소리꾼 이 사람의 신명나는 즉석 공연이 선사한 전율의 피날레!

2026. 4. 27.







쿠팡플레이 예능 <강호동네서점>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꾼 이자람의 솔직하고 신명나는 입담과 함께 유종의미를 거뒀다.

<강호동네서점>은 목소리는 크지만 마음은 여린 INFP 책방 사장님 ‘호크라테스’(강호동)가 책방을 찾아 온 손님과의 인생을 펼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.

이자람은 한국 문화계를 이끄는 ‘시대의 소리꾼’답게 등장부터 남달랐다. 강호동을 보자마자 “인형 같으세요”라며 에너지 넘치는 첫인사로 포문을 연 그는,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동요 <내 이름(예술아)>을 강호동과 함께 부르며 단숨에 시청자들을 추억의 한복판으로 소환했다.

화려한 아역 스타 시절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도 가감 없이 털어냈다. 당시 음악방송 <가요톱10> 1위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켰지만, 이자람은 쏟아지는 관심이 버거워 “세상이 조금 무서웠다”고 회상했다. 거칠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‘소리’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타고난 ‘흥내 내기’ 재능이었다는 고백에, 강호동 역시 “씨름에서도 상대 기술을 카피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”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.

이날의 백미는 단연 즉흥적으로 펼쳐진 판소리 <노인과 바다> 라이브 무대였다. 헤밍웨이의 고전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이자람의 소리는 현장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고, 시청자들을 완벽하게 몰입시키며 ‘이야기꾼’의 경이로운 힘을 증명했다. “나 자신보다 내 작품이 이 시대의 판소리로 더 오래 남기를 바란다”는 이자람의 철학에 강호동은 “언어와 국경을 넘은 소리의 아름다움이 더 멀리 가기를 응원한다”며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다.

<강호동네서점>은 단순 토크 예능을 넘어, 책을 통해 게스트의 진솔한 ‘인생 챕터’를 함께 써 내려가는 특별한 여정을 선보였다. 악뮤, 이세돌, 박상영 작가부터 하정우, 이선빈, 김동현에 이르기까지, 장르를 불문한 게스트들은 서점이라는 아늑한 공간 안에서 그 어디에서도 꺼내놓지 않았던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시청자들에게 가슴 뭉클한 공감을 선사했다.

무엇보다 국민 MC 강호동의 가치 있는 변신이 빛났다. 강호동은 특유의 파워풀한 에너지 대신, 게스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‘리스너’로서 그들의 진면목을 섬세하게 이끌어냈다. 자극적인 재미보다는 사람의 진심과 온기를 연결하는 데 집중한 그의 새로운 소통법은, 예능적 재미와 인문학적 깊이를 동시에 잡으며 ‘강호동표 북 토크’라는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는 찬사를 끌어냈다.

이자람의 신명나는 토크로 아름다운 피날레를 장식한 <강호동네서점>의 전편은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.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쿠팡플레이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.

취재 문의 [media@coupang.com](mailto:media@coupang.com)